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三)

金午星

그러므로 眞正한 意味의 合理性은 그것이 知性的 法則인 동시에 또한 對象, 즉 客觀世界의 法則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近代의 合理主義는 차츰 對象, 즉 客觀을 拋棄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知性的 法則을 同時에 客觀의 法則으로 보지 안코 오직 知性 獨自의 法則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야 客觀世界는 知性的 法則이 構成하거나 生産해 노흔 被造物로 보기에 이르렀다. 知性은 客觀을 理解하는 것이 아니고 客觀을 構成하여 生産하는 主體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主觀에 依한 客觀의 支配, 즉 知성이 現實에 君臨하게 된 것이다. 新칸트派의 理想主義 같은 것은 이러한 合理主義의 最後形態이다. 그들은 知性的 合理的 法則에서 빚어낸 理想과 價値에 依하야 온갖 客觀的 現實을 指導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合理主義가 차츰 現實적으로 無力을 나타냄에서 知性的 混亂과 危機가 와지게 된 것이다. 知性은 自己의 法則을 가지고 現實을 指導하려하나 現實은 그 知性的 指導를 拒否하기에 이르렀다. 合理主義는 그것이 아모리 頭腦的, 觀念的 造作이라 할지라도 一定한 現實的 根據를 갖고 생겨졌으며, 또 成長되어 온 것이니 즉 市民階級の 오직 企劃과 計算에 依한 利潤生活이 그것이다.

그들은 오직 科學的인 正確한 企劃과 計算만 가지면 安逸하게 앉아 利潤을 獲得하게 된다. 近代의 合理主義, 즉 理性的 合理性이란 이러한 企劃性, 計算性的 理論的 表現에 不過한 것이었다. 그런데 市民社會는 이미 다른 論文에서 말한 바와 같이 企劃性, 計算性的 過剩 때문에 恐慌과 危機를 當하고 있다.

그것이 消費量을 無視한 多量生産을 나아 노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論理의 過剩은 市民的인 知性的 混亂과 危機를 나아 노았다. 知性的 法則이 現實을 考慮하지 안고 너무도 燦然한 理想과 價値를 多量으로 生産한 까닭이다.

이리되면 어떠한 正確한 企劃과 計算도 現實이 容納지 안는다. 아무리 正確한 論理的 法則에서 빚어낸 價値와 理想도 너무도 非合理性을 暴露하고 있는 지금의 現實을 指導하며 統制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서 知性的 無力이 暴露되었으며 따라서 知性的 混亂, 危機가 와진 것이다. 이리하여 市民哲學은 그 知성을 維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 市民文化的 繼承者들은 이러한 知性的 混亂을 한낱 現實의 非合理性에만 돌리고 現實로부터 知성을 擁護하려 한다. 勿論 知性的 混亂은 非知性的 現實의 탓일 것이다. 그러나 今日 市民的 知性的 混亂은 또한 그 自體에 별서 오랫동안 包裝해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先輩인 짐멜, 스펀그라[슈펜글러] 등의 文化危機의 絶叫을 들어오면서도 깨닫고 잊지 못한 모양이다. 現實에 君臨하던 知성이 現實에 □□한 不適應성을 나타내임으로 □□性的 混亂이 온 것이라면, □□는 現實만 탓하고 □□□에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면, 또한 □□自身을 反省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知性的 改造, 再建이 없이 知性 擁護는 全혀 不可能한 것이다. “非合理主義와 合理主義의 例를 探索하고 그 限界를 設定□(바□리-)하는 것쯤으로는 知性的 改造는 바랄 수 없다. 知性 그 頭腦的 造作인 合法則성을 根本적으로 改造하지 안코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별서 市民文化가 自己를 버리는 것이 되며 市民哲學의 □滅을 意味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市民的인 哲學이 知성을 喪失하게 된 것은 市民哲學의 歷史的 終焉을 意味하는 것이다.

X X

知性的 混亂을 經驗한 一部の 사람들은 知性的 敗北를 絶叫하게 되었다. 知性的 混亂은 온갖 非合理性에 對한 知性的 無力에서 오는 것이니, 知성은 敗北되었을 뿐, 다시 □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合理主義에 對한 非合理主義가 擡頭되었다. 知性的 代身 非知性的인 것, 즉 直觀, 意欲, 情熱, 行動 등을 主張하게 되었다. 여기서 哲學은 知성을 喪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故意로 知성을 驅逐하기에 일은 것이다.

우리는 現代의 非合理主義를 大體로 두 가지 部類에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體驗, 直觀, 自覺 등에 基礎한 生の 哲學, 實存哲學 등이요, 다른 하나는 地方的 情熱에 立脚한 全體主義 哲學인 것이다. 生の 哲學, 實存哲學 등은 知性的 合法則性的 代身に 生の 體驗, 直觀 또는 實存(人間存在)의 現實狀況에 對한 自覺 등을 내세운다. 그런데 現代인의 體驗 더욱이 知性人의 體驗은 무엇보다 不安이다. 不安처럼 現代 知性人의 生活을 逼迫해 오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不安의 體驗에서 生, 또는 實存을 直觀하며 自覺한다. 不

안을 그를 實存哲學은 人間存在의 有限性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 하이데겔 [하이데거]에 依하면 人間은 世界內 存在로서 日常的 時間性 가운데서 지낼 때 그는 有限的인 存在다. 이러한 有限的인 人間이 그 有限性을 自覺하고 그 有限性을 超越하려할 때 不安이 體驗된다. 그러므로 不安은 有限的인 人間이 自己를 超越하려는 自覺에서 생겨지는 것이다. 다시 不安에서 體驗하는 것은 無다. 人間이 自己의 有限性을 自覺하고 그것을 超越하려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無 즉 無限의 世界이다.

다시 말하면 不安은 人間을 有限性으로부터 無限性에 超越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스툼[세스토프]은 “無로부터의 創造”를 웨친다. 有限的 現實을 超越한 뒤의 人間은 “無로부터 創造”를 營爲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스툼은 무엇보다 科學, 理性 等の 合理性에 反抗한다. 合理性이 儼然한 現實의 論理라 하더라도 그 現實이 우리의 人間存在를 逼迫하는데 잇어는 우리는 現實을 버리고 人間을 擁護하지 안흐면 안된다는 것이다. 科學, 理性으로부터 人間存在를 擁護하라고 그는 웨친다. 이리하여 非合理主義는 니히리즘에 로 흘러가고 잇는 傾向을 보여주고 잇는 것이다.